

전기관련 중소기업 업체들의 신제품 소개 및 신기술 동향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주)뉴인텍은 증착필름 및 필름콘덴서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44년 동안 콘덴서만을 연구, 생산하고 있는 전문업체이다.

백색가전(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용 콘덴서 시장이 타깃이었던 뉴인텍의 콘덴서는 최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와 태양광 발전소, 스마트그리드 등 전기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콘덴서 시장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미 국내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인버터용 콘덴서는 뉴인텍이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태양광 인버터용 콘덴서 또한 업계 최초로 개발을 마치고 자사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소개할 제품은 최근 뉴인텍에서 야심차게 출시를 앞둔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콘덴서이다.

2011년에 새롭게 설비를 신설하고 개발을 완료하여 2012년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하였다.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용 콘덴서는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부하가 사용될 때 발생하는 무효 전력의 양을 상쇄시켜 불필요한 전력의 낭비를 개선하는 역할 즉,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고압콘덴서 장착]

이미 뉴인텍에서는 저압진상용 콘덴서를 제조, 판매하고 있어 전력용 콘덴서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600V 이하인 저압진상용 콘덴서는 단상과 3상용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제품은 600V ~ 7000V인 고압 진상용 콘덴서와 7000V를 초과하는 특별 고압 콘덴서로서, 단상과 3상용 두 종류이며 모두 역률개선 용도로 사용된다.

뉴인텍의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용 콘덴서의 특징은 크기를 줄이고 경량화를 구현하면서, 기존 제품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량화를 통한 재료비 절감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커패시터 내부의 절연유로 PCB (Polychlorinated Biphenyl: 폴리염소화비페닐)를 배제하고 합성유를 채택함으로써 환경을 고려하였다.

뉴인텍은 각종 인증 획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성제품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관공서 및 전력시장으로의 사업영역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EA